

완도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 개발 착수

완도군이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기후 치유는 바다가에 있는 바람, 태양광, 해양에어로졸(파도에 의해 형성되는 작은 공기방울) 등 해양 기후자원을 활용,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비치바스켓(해변의자), 노르딕워킹(산책), 명상 등의 방법이 있으며 해양치유 요법 중 하나다.

특히, 해풍에 함유된 염분성분은 호흡기, 알레르기,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의학·과학적 검증 실행매뉴얼 개발 지역민 건강증진·치유 관광객 유치 확대

개발 용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은일 교수는 해양기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 방법과 역학연구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완도의 해양기후 환경과 여건을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검증을 통해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은 청정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산업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가지원 해양치유산업 협력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4계절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

소음이온이 풍부한 것은 완도가 해양기후 치유를 위한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백나무 등을 이용한 산림치유센터가 치유산업에 있어서는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지만,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는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양자원이 산림자원보다 치유효과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뿐 아니라 치유자원의 종류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에서 이번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하게 된 계기는 별다른 인프라 구축 없이 바닷가 활동을 통해 해

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호흡기·피부 질환자, 스트레스 해소 등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기후 치유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치유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주목! 이사람



박흥률 목포 시장은 13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기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전동평 영암 군수는 13일 낮 12시 덕진금호마을에서 열리는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강진 노후방조제 개보수 13억 확보

장계방조제 선정...각종 자연재해 대응능력 강화

강진군이 노후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태풍·해일 등에 대한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억원을 확보, 장계방조제를 개보수한다.

이번 신규 개보수지구로 선정된 장계방조제는 지난 1965년 축조됐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강진군은 방조제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도비 13억원 확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강진군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설명회를 거쳐 올 가을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개보수 사업에 착공한다. 이에 따라 장계방조제는 사석보강 및 압사석 덧쌓기 등을 추진, 많은 농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 재해로부터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아 군의 재정력 강화와 현안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추진 동력에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장계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주민들의 오랜 근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해남 민선 7기 '관광 활성화' 새판 짬다

관광분야 전문가 11명 초청 우수영·달마고도 등 현지답사

해남군이 민선 7기를 앞두고 지역발전 동력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래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관광분야 교수, 여행작가, 언론인, 여행사 관계자 등 관광전문가 11인을 초청, 해남관광발전을 위한 전문가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땅끝관광지와 우수영, 달마고도 등 관내 15개소를 돌아본 이번 답사는 주요 관광지 실태 진단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관광지별 관광 여건 분석과 실태 진단, 발전요인 및 가능성 진단과 관광정책 반영 자료를 도출할 계획이며, 현지답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남군 관광분야의 비전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군정의 각 분야별 중점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들



해남군은 최근 관광분야 교수, 여행작가, 언론인, 여행사 관계자 등 관광전문가 11인을 초청, 해남관광발전을 위한 전문가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을 위한 미래설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전략 수립으로 관광객 300만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진단을 거쳐 중장기 관광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별 관광자원의 명품코스와 관광객

유인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지답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정확한 실태 진단과 획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관광 정책 발전 방안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어르신 2,248명에 일자리

목포시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시는 최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월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해 노인일자리 사업 통합발대식을 갖고 안전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설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오는 12월까지 어르신 2,248명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1,905명보다 343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목포시는 64억7,700만원(시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4개소와 목포문화원 등 8개 수행기관에서 32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경증치매 노인 가정 등을 방문해 안정적인 일상을 돕는 '노노케어' 사업과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식사예절 교육, 급식지원 및 위생관리 등을 돕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등이 있다.

참여 어르신은 1일 3시간, 주 2~3일, 월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인당 월 27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강성우 기자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서남리 61-2번지 일원에서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준공

135면 주차가능 시가지 주차난 해소 기대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서남리 61-2번지 일원에서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준공식을 가졌다.

영암읍 공영주차타워는 국비 10억원을 포함 총 25억9,000만원을 투입, 건축면적 646평 규모로 1층 65면, 옥상 70면 총 135면 주차시설로 건립됐다.

영암읍 공영주차타워는 지난 2015년 1월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신청 이후 3년만에 준공식으로 결실을 맺었다. 영암읍 한복판에

조성된 영암읍 공영주차타워는 연중 무료로 이용 가능해 영암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지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면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2018 영암방문의해와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영암읍 시가지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완도 국고 확보 선제적 대응 2019년 국고 건의사업 보고회

완도군은 국고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2019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갖고 국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열린 보고회에서는 해양수산, 농업축산,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수도 분야 등에서 일반국고 14건, 지특회계 17건, 환특회계 1건 총 32건의 국고지원 건의사업에 대한 보고회가 이뤄졌다.

주요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는 해양헬스케어센터 건립지원, 수출용 김 클러스터 구축, 이순신·진립장군 선양사업, 보길 지방상수도 저수지 신설공사 등이 있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2019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갖고 국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완도군에서는 각 실과소별 건의사업에 대해서도 실국별 반영활동을 4월 말까지 적극 추진,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국정 100대 과제 본격 시행과 함께 정부역점 정책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역량의 지방재정 여건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 포 010-3272-2765
- 011-632-0323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클릭! 내고장 소식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 캠페인

영암군은 최근 서울 명동거리 일원에서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펼쳐지는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라퍼 커션 및 캐리커 퍼포먼스 공연은 이날 명동을 방문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또 배포된 영암의 대표 농특산물 달마지쌀·무화과잼·대봉 감발랭이 등도 호평을 받았다. /영암=최복섭 기자



광양 진월면청년회 의료봉사

광양시 진월면청년회는 최근 진월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광양서울병원과 함께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조원원 원장을 비롯해 정형외과·내과 의사 및 간호사 20명이 참여해 무료·관절·소화기 계통 진료 등을 제공했다. 황성현 청년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를 해주는 광양서울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담양 월산면 응급구조 교육

담양 월산면은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월산면주민자치회 위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담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전문 강사를 초청,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 뿌듯하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진도 드림스타트 숲 캠프 체험

진도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운영중인 '나눔의 숲 캠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숲 체험을 실시했다. 나눔의 숲 캠프에 참가한 40여명의 학생들은 야외 프로그램을 통해 숲 해설가와 함께 숲 오감 체험과 자연놀이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숲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편백 씨앗을 이용해 반지를 만드는 것이 참 신기했다"며 "체험활동을 통해 숲과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